

Bangladesh

-Raonatti-



11월 월간보고

방글리아

-구정선, 김나드, 이창현, 한지연, 홍수연-

Contents.



- 001. 월간 일정
 - 002. 주요 활동 및 활동 나눔
-
- 003. 향후 활동 계획
 - 004. 개인별 월간 소감
-



1. 월간일정

월간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Dahapara		•Dahapara •텃밭 가꾸기
4	5	6	7	8	9	10 <small>4</small>
•Dahapara •한국어 교육	•Review •GBC방문	•인형극 준비	•Dahapara •한국어 교육			•Dahapara •옷기부 정리
11	12	13	14	15	16	17
•Dahapara •한국어교육	•월드비전 방문			•Dahapara		
18	19	20	21	22	•23	•24
•Dahapara 벽화 그리기 •한국어 교육	•Dahapara 벽화 그리기		•Dahapara 벽화 그리기 •한국어 교육	•중간평가 준비		
25	26	27	28	•29	•30	
•한국어 교육	•Dahapara	•중간평가				



3. 주요활동 소개 및 나눔

주요 활동 소개

- Dahapara NFPS -

1. 대상: Dahapara School Students.
2. 시기: November
3. 교육활동
 - 수학: 1, 2단계 - 방글라데시 숫자 10까지 외우기 및 간단한 덧셈 뺄셈
3, 4 단계- 큰 숫자 덧셈 및 뺄셈
2자리 숫자 곱셈 및 나눗셈
 - 영어: 1, 2 단계 - 알파벳과 알파벳에 해당되는 단어
3, 4 단계 - 영어단어와 영어 시 외우기
 - 미술: 그림 그리기 및 풍선을 이용한 탈 만들기
 - 기타: 애니메이션 상영



주요 활동 나눔 - Dahapara NFPS -

다하파라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12월 초에 잡혀 있어서, 우리가 진행하고 싶었던 다양한 수업방식을 자유롭게 진행하지 못해 많이 아쉬운 11월이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 아이들을 기존에 있던 세 개의 그룹에서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분반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나니 아이들의 정확한 실력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 위주로 진행하니 수학과 영어분야가 아이들이 접하기에 어려운 분야인데다가 아이들의 집중도 많이 흐트러지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첫째 주에 있는 아이들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보다 더 다양한 수업을 계획 중이다.



주요 활동 소개

- Dahapara clinic -



1. 활동주체: 라온아띠 및 클리닉 간호사 및 닥터
2. 시기: 18, 19, 20, 21 November
3. 활동내용 : 건물 외벽 페인팅 및 클리닉 업무 보조

주요 활동 소개

- Dahapara clinic -

- 활동시기 11월 18,19,20,21일
- 주체: 라온아띠
- 활동내용

클리닉 건물 페인팅

- 1일차: 브로싱 및 건물 외벽 먼지제거 작업
- 2일차: 흰색 바탕으로 건물 외벽 전면후 페인팅
- 3일차: 본격적인 스케치 및 다양한 색상 제작 후 페인팅 작업 돌입
- 4일차: 페인팅 작업 마무리 및 그림 테두리 작업



주요 활동 나눔

- Dahapara clinic -

다하파라 클리닉의 벽화 역시 하고 난 후 그리기만 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매일 꽃만 그리던 아이들이 우리가 벽화에 그린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헛된 일을 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클리닉의 환자가 없다고 우리의 클리닉에서의 역할인 환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생 교육을 해 줄 수도 있고, 벽화에 위생과 건강과 관련된 교육 벽화를 그려 클리닉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 반성이 된다.

앞으로 우리가 클리닉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구상해 봐야 겠다.



주요 활동 소개

-end poverty campaign 옷기부-

1. 대상: Dahapara School Students.
2. 시기: 11월 25일
3. 기부처 : 진주YMCA END PORVERTY CAMPAIGN시 진주 시민
4. 목적 : 방글라데시의 DAHAPARA 학교 아이들이 재정상 교복을 지급 받지 못하고, 집에 입을 옷이 없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빈곤 퇴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주 YCMA 에서 캠페인활동으로 옷기부를 받고 우리가 DAHAPARA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함
5. 과정
 - 한국에서 받은 옷을 분류
 - 학생 별 개인 사이즈 측정
 - 개인별 옷 포장 및 지급



주요 활동 나눔

-end poverty campaign 옷기부-

End Poverty Campaign을 하면서 캠페인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의 생각 모으기와 방글라데시의 빈곤 실태 등 실제로 실천하는 캠페인은 못했는데, 진주 YMCA의 도움으로 실질적으로 이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빈곤퇴치 캠페인이 10월 17일 단 하루동안 일어나는 이벤트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캠페인의 일환이 된 것 같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옷을 배달 받는 택배 비용과 방글라데시에 내는 세금이 너무 비싸 차라리 이 돈으로 여기서 옷을 사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기부 받은 옷을 아이들에게 선물해줄 때 진주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 좋은 캠페인이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미리 알았다면 환경에 맞춰 줄 수 있었을 텐데 가정 방문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 다하파라 아이들 뿐만 아니라 마을 아이들에게도 옷을 줬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마을 주민들에게도 주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 옷 기부를 받는 캠페인의 목적은 옷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준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준 아이들은 학교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었다. 학교에 등록됐지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미리 조사해 가정방문을 했다면 해결이 됐을 텐데 아쉽다.

나머지 옷을 어떻게 해야 할 지가 가장 주된 우리의 최근 고민거리다. 점점 추워지는 요즘,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다.

주요 활동 소개

- Korea Language Class -

- 활동시기
매주 일요일, 수요일 3:00-5:00시 (두 시간)
- 대상자: YMCA 청년 회원 및 주민
- 활동내용
 - + 활동 중간 이후 중간미니테스트 실시
 - + 실시 후 그들이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수준에 맞추어 한 시간 수업 후 개별 지도 실시
- 변경 사항
 - + 청년층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중 장년층까지 연령층 확대
- 향후 계획
 - + 한글 수업 뿐 아니라 한국어 노래 강습



주요 활동 나눔

- Korean Language Class -

한 주에 두 번인 한국어 수업이지만, 학생들의 한국어 배움에 대한 열정은 매우 뜨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한국어 수업을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수업 시간은 단순히 한국어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청년들과 함께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어 수업 시간에 보다 다양한 문화적 소통을 위한 커리큘럼을 짜려고 준비 중이다.

스케줄 상으로는, 한국어 클래스 수업시간이 11월부터 고정됐다. 그 덕분에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태권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오후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기수의 방글라데시 팀은 이 시간을 문화를 본격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할 예정이다.

우리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방글라데시와 가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비리시리에 있는 Cultural Academy에 참석해서 가로 춤과 가로 노래를 배우고 싶어 건의했다.

주요 활동 소개

- 중간평가 -

- 평가시기
11월 27일, 28일
- 방문자: 김일식 사무총장님
이아나 간사님
- 내용
라온아띠 단원 활동 및 개인 소감 발표 회의 후, 방글라데시, 가로 족 문화교류 향후 우리가 해야 할 계획들에 대해 논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단원들의 홈 스테이 가정 방문 우리의 활동지역 DAHAPARA방문 비리시리 YMCA 청년들과의 교류



주요 활동 나눔

- 중간평가 -

우선 시간이 부족했다. 빠듯한 일정 탓에 우리가 하고 있는 메인 프로그램인 다하파라 수업 참관도 하지 않았고, 한국어 수업 참관도 없었다. 또한 소통의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와 한국 YMCA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상의할 수 있었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다리가 생겨 짧지만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비리시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중간평가 때 아나 간사님이 오신 것도 좋았지만, 진주 YMCA의 김일식 총장님이 많이 챙겨주신 것도 정말 감사했다. 이런 대화를 나눠봄으로써 진주에서의 국내훈련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Youth Forum 아이들과의 미팅에서, 아나 간사님이 Youth Forum 아이들에게 우리 라온아띠 팀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본 상황에서, youth아이들이 대답을 잘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이곳의 아이들에게 많이 인지시켜주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더 많은 노력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주요 활동 소개

-월드비전 활동 참가-

- 방문시기: 11월 12일~14일
- 방문 단체

1일차 : Health Program 방문

2일차 : Education program
(coaching program),
Sponsorship program 방문

3일차 : Economic program



주요 활동 소개

-월드비전 활동 소개-

- Health Program

- Nutrition model

월드비전이 health program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마을 중 하나인 kamar khali villege 를 방문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아이의 어머니들이 영양소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최소한의 칼로리와 여러 가지 요리법들을 배우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활동이다. 프로그램은 한 달 동안 진행되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의 몸무게에 변화가 있는지,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체크한다. 그것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몸무게로 영양 실조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못했는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 Water hygiene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동기는 벌레, 날파리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병에 쉽게 감염이 되고 그런 병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위생적인 화장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대부분의 물은 비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수가 되지 않은 물을 마셨을 경우 비소중독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월드비전에서는 비소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마을에 도구를 제공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집의 물에 비소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몇 명의 사람이 물과 관련한 여러가지 위생(심지어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한다.

주요 활동 소개

-월드비전 활동 소개-

- Education program
 - Coaching class
방글라데시는 primary school에서 high school로 진학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시험을 치뤄야 한다. 기본적인 성적에 미달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coaching program이다. 수업과목은 영어와 수학이며, 우리가 방문한 salpukoruniya 학교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0시 이후에는 정규학교가 운영되는 학교였다. 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마을 아이들로써 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월드비전에 내는 돈은 없고, 코칭프로그램의 멤버들만 한 달에 한번씩 돈을 모은다고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부모님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 Sponsorship program
Durgapur world vision sponsorship program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번 씩 사회의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열린 토론과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른 아이들이 주변의 다른 아이들을 스폰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즉, 방글라데시의 아이들 사이에선 조혼, 학교 중퇴, 성희롱 이 세가지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이며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기른 아이들은 주변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힌 아이들의 인식을 일깨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소개

-월드비전 활동 소개-

- Economic program
 - **CBO(community best organization)**

우리나라의 생협과 같은 개념의 조직인 CBO를 방문 했다. 월드비전이 퍼져있는 작은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 큰 공동체를 형성해 주고, 기초 시설과 농기구를 지원해준 일 밖에 없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이나 돈을 적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향상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소를 기르고, 같이 농사일을 돕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가게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끼니를 챙겨먹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해주는 등의 더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 분들과 주요 관리 분들이 모두 모여서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개인적인 생활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 와 닿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CBO를 보면서 든 생각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구성원들이 같이 잘 살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활동 나눔

- 월드비전 방문 -

영양실조 지역의 주민들 (특히 0세~ 5세 사이의 아이들과 그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음식을 하는지 알려주기만 한다고 해서 이곳의 영양실조가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머니들이 정말 방법과 영양소를 몰라서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던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을 방문하고 월드비전 스텝분께서 어머니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우리들이야 어릴때부터 영양소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배우고, 다양한 음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영양실조에 대해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으며,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았다. 월드비전에서 영양소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아이들의 교육의 중요성 또한 어머니들에게 알려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정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몸무게와 엄마들의 몸무게까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첫 번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이어서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었지만 어린 아이들의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요 활동 나눔

- 월드비전 방문 -

● education program에서는 방과 후 아이들의 부족한 과목의 공부를 무료로 보충수업을 해주는 공부방 개념의 기관을 방문했다. 거의 한국의 공부방과 비슷한 개념이어서 그냥 아이들의 교육을 월드비전이 지원을 해주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매월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과 선생님, 스텝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일대일로 상담을 하는 개념과는 많이 다르고, 이곳의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다.

● sponsorship program은 durgapur의 youth들이 사회문제에 대해서 토의 하고 이 지역의 아이들이 일찍 결혼하는 일(조혼)과 학교를 일찍 자퇴하는 것, 여자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가진다. 아이들이 조혼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안되면 지역의 높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정 안된다면 정부의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로 조혼을 막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번씩 가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조금 활발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요 활동 나눔

- 월드비전 방문 -

economic program에서는 우리나라의 생협과 같은 개념의 조직인 CBO를 방문 했다. 월드비전이 퍼져있는 작은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 큰 공동체를 형성해 주고, 기초 시설과 농기구를 지원해준 일 밖에 없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이나 돈을 적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향상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소를 기르고, 같이 농사 일을 돕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가계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끼니를 챙겨먹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해주는 등의 더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 분들과 주요 관리 분들이 모두 모여서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개인적인 생활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 와 닿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CBO를 보면서 든 생각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구성원들이 같이 잘 살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4. 향후 활동 계획

향후 활동 계획

- 텃밭

현재 배추, 열무, 부추, 당근이 우리의 텃밭에서 자라고 있다. 그 중 배추와 부추가 빠른 시일 내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

12월 말 에서 1월 초 사이에 한국 야채들을 추수하여, 여기에 서 구할 수 있는 양념과 재료들을 이용하여, 요리를 하여, 비리시리 주민 및 청년들에게 한국 야채들을 소개 해줄 것이다.

- 태권도

중간평가 때, 진주 YMCA로부터 태권도 미트와, 도복들을 받았다. 앞으로 많이 가르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태권도 동작, 특히 여자들에게는 호신 동작들을 알려주어,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동작과, 태권도의 역사와 이 동작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절대 쓰여선 안됨을 각인 시키도록 교육을 시킬 것이다.

향후 활동 계획

- 한국어 수업 -
 - 체계적인 수업 참여 학생관리와 일정 통보를 위해 기본적인 신상을 조사하고 출석부를 제작
 - 간단한 test후 수준에 맞는 교육 실시
- 다하파라 스쿨 프로그램
 - 물로켓 만들기
 - 운동회
 - 인형극
- 어른 옷 활용 방안
- 다하파라 스쿨 학생들 신상카드 만들기
 - 이름, 나이, 성별, 특징, 사진, 집 위치, 종교, 가족관계 등 다하파라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모은 신상카드 만들기
- 다하파라 마을 지도 만들기/ 비리시리 마을 지도 만들기



4. 개인별 월간소감

개인별 월간 소감 -구정선-

11월이 어느덧 정신없이 지나갔다. 매번 월간 보고서를 쓸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은 참 빠르고 정신없이 가는 것 같다. 이 달엔 특히, 중간평가가 있는 달이다. 중간평가로 인해, 한국의 소식들, 보고 싶었던 간사님과 총장님의 만남과 소통이 나에게 있어서 이곳 생활에 큰 활력소와 힘이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라온아띠 단원 중 살이 많이 빠진 단원 중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간사님과, 총장님은 실망스럽게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눈빛 이었고, 오로지 창현이형에게만 살이 빠졌다는 말을 많이 하셔서 좀 실망했다.

중간평가 이전에,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과 긴장감이 있었는데, 간사님과 총장님은 이 많은 부담감을 많이 덜어주셔서, 남은 기간 편한 마음으로 이 비리시리 생활을 임할 수 있겠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즐거웠다. 이달에는 이곳 생활에 완벽히 적응이 된 것 같다. 이제 어딜 가든 낯설지가 않고, 이곳 생활이 너무 편해졌다. 또한 많은 친구들과 아무 고민도 서로 나누며 지내는게 이 친구들도 나를 이제 외국인으로 낯설게 보는 눈빛보다, 정말 친구로서 그들과 소통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특히, 일과 후 많은 시간을 홈스테이 가정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정이 들어버려서, 헤어질때 어찌나 싶기도 한다. 다하파라에서는 이번달에 아이들 시험기간이라, 수학 영어를 가르칠 것을 요구 했는데, 이 달 다하파라 프로그램은 다소 지루했다. 나는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 알파벳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알파벳만 반복시키니 아이들도 지루해 하는 모습을 보고 나또한 지루함을 느꼈다.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 현지 선생님이 직접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제 12월이다. 전반적인 활동은 12월과 1월 초까지 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미술과 다양한 교육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형극도 준비해야 하고 바빠진다. 또한 12월부터는 태권도클래스가 시작된다.

나드와 내가 태권도 경험이 있는 유일한 단원이다. 그래서 둘이서 함께 의논하여 태권도를 가르칠 것이다. 최근에 태권도를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연습을 많이 안해서 인지, 발이 잘 안올라간다. 그들에게 어설픈 태권도를 보여주고 싶진 않다. 연습을 꾸준히 해서 어설픈 동작은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12월 한 달 또한, 모든 단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개인별 월간 소감 -김나드-

11월 달은... 정말 무난~하게 지나간 달인 것 같다. 개인 월간보고를 쓰려고 하니 쓸 말이 없다. 중간평가를 준비했고, 진주YMCA에서 보내 준 옷들을 dahapara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내 머릿속에 남은 활동은 이것뿐이다. 기존에 했던 활동들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점점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니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졌고, 벌여놓은 일들을 주워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활동 면에서 조심스러워졌다면 생활 면에선 매우 적극적으로 변했다. Host Family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더 많은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한국음식-방글라데시음식 만드는 법을 서로에게 알려주면서 지냈다. 솔직히 며칠 간은 가족들의 분위기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호기심의 눈으로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다.

엄마와 나는 body language로 통하는 사이다. 그래서 내가 느꼈던 모든 감사의 감정들을 온 몸을 이용해 표현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선 잘 하지 않던 애정표현의 말들을 현지 친구들에게 배워 엄마에게 그 말을 하면 가족들이 너무 호탕한 웃음으로 답해주는 게 매우 행복하다. 몸으로, 말로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웠다. 한국에선 그 표현이 너무 어렵고 어색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줄만 알았던 그 표현들을 너무나 쉽게 가족들에게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고맙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팀원들에겐 그 마음을 표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ㅋㅋ

개인별 월간 소감 -한지연-

벌써 세달 째. 벌써라는 말이 식상하긴 하지만 정말인걸. 세 달째의 방글라데시는 세 달째 임에도 수시로 바뀌는 일상에 찰떡같이 적응하고 있는 우리들과 중간 평가를 통해 얻은 징검다리 포인트들로 꼭 차 있다.

중간평가를 끝낸 지금,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라는 믿음이 이제 슬슬 바닥을 드러내고 어떡하지, 지금까지 우리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꿈틀꿈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우선, 다하파라 스쿨은 아이들의 시험준비로 계속해서 영어와 수학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1, 2단계 담당 단원들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3, 4단계 아이들을 가르친 나로서는 날이 갈수록 대답하는 단어 수가 늘어가고 영어 챗트를 줄줄 읽는 아이들을 보면서 솔직히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테다. 물론 그 공의 대부분은 Gita선생님 것이지만. 드디어 아이들의 시험이 끝난 지금, 이제 틀에 박힌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초반처럼 색다른 수업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 다섯 명은 들떠 있다.

그리고 한국어, 태권도 교실과 관련해서 중간평가 때 얻은 포인트는 '과연 이 수업들이 비리시리 청년들의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개설인가, 아니면 우리가 와서 개설된 것일까' 였다. 지금 이 글을 적는 지금도 확신하지 못한 문제지만 이제 이걸 고민하기 보다는 우리가 벌여놓은 수업들이 어떻게든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리시에서의 삶 네 달째, 대선투표를 위해 갔던 다카에서의 삼일 동안 비리시리가 그리워질 정도로 여기가 우리 마을 같다.

개인별 월간 소감 -이창현-

11월은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온지 3개월이 되는 달이다. 5개월 중에 가운데 달이다. 11월 전체적으로 무난한 한 달이었다. 특별한 활동이나 일 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활동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달이었다. 그런데 11월은 조금 특별히 중간평가가 있어서 한국에서 간사님들이 오시니까 너무 기뻐다. 나머지 한국어 수업과 다하바라 수업 등이 있었다.

먼저 다하바라는 매일 같이 가는 중에서도 11월은 시험준비로 바쁜 한 달이었다. 여기서 수학 영어 중심의 수업을 부탁을 하여 수학 영어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잦 있거나 신나는 것은 없었다. 다만 애들이 수업을 통해서 향상되는 것을 보니 그 또한 기쁨이었다.

한국어 수업은 조금 아쉽게도 학생들이 조금씩 줄어가는 향상을 보여 안타까웠다. 여기 학교 사정상 애들이 시험이  많다는 것과 추수철을 맞아 일이 바쁜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아이들의 의지가 꺾여가는 것을 보니 서글프기도 하였다.

중간평가는 오랜만에 오신 이아나 간사님과 진주 김일식 총장님의 방문으로 너무 기뻐다. 그 동안 쌓아둔 만남의 원함을 다 풀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간사님들의 조언과 사다 주신 한국음식은 엄청난 기쁨이었다. 그리고 개인 면담을 통해 조금은 쌓아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간사님 곧 메일 할게요) 그리고 총장님의 좋은 말씀들도 새겨들을 수 있었다.

이제 중간 달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간다. 남은 기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다. 답은 알고 있는데 행동은 어렵다.

개인별 월간 소감 -홍수연-

이제는 방글라데시에 있을 날이 반도 안 남았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게 된다. 처음에 올 때는 하고 싶었던 계획도 많았고 해야 하는 계획들도 많았지만 중간평가를 거치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가장 많이 반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몇 달 동안 같이 지낸 이곳의 청년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고 라온아띠 활동의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너무 간과해 온 것 같다. 그리고 이곳에 외국인이 처음이고 너무 많은 관심과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나도 모르게 이 활동들의 주인이 우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옳은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었다. 국내훈련을 하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곳의 주인은 이곳의 주민들이고 우리가 파견되어 활동을 하는 이유도 이 마을을 위한 이인데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시작을 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리도 이번 중간평가로 인해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뒤돌아 보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비리시리에서의 시간이 거의 한달 가까이 남았다. 그만큼 DAHAPARA활동과 한국어 수업, 그리고 12월부터 시작한 태권도 수업, 그리고 우리가 만든 텃밭의 작물 재배까지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 컸는데 어느새 정말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는 생각이 크다. 처음에 왔던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맘을 다 잡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 우리가 꼭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들, 후회 없는 방글라데시, 비리시리 생활을 하고 싶다.